

노인과 바다

김선미

어둠을 집어삼킨 바다위에
빛을 놓지않은 작은 배 하나.
노인의 늙은 손엔 낡은 밧줄 들려있고
살점잃은 청새치 뱃머리에 동여매고
잃은 것은 살점이오
신은 것은 존엄이라.



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

고전 도서명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
작품 설명	어둡고 깊은 바다와 대비되는 배의 빛으로 노인의 강인한 의지와 꺾이지 않은 열정을 표현하였고 그림에서는 노을 지는 바다로 이제(너무 늙었지만) 다시 떠오를 태양처럼 노인의 강인함을 표현했다. 늙었지만 아직 강인하고 열정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그림 표현, 그리고 뼈만 보고 돌아오는 배에서는 배안에 비록 앙상한 뼈뿐인 청새치지만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 속에 노인은 지지 않고 꺾이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배에 한가득 존엄이 실려 있음을 표현하였다.